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도자료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4호,
TEL.042-331-0092, FAX.042-252-6976 www.cham.or.kr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22년 8월 11일(목)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설재균 의정감시팀장, 042-331-0092/010-3583-8786)

제 목 / 대덕구의회 원구성 실패, 지역주민에게 사과가 먼저다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95년도에 출범하여 대전 시민과 함께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3.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 7일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장단 선출을 하지 못하고 폐회 했습니다. 오는 8월 12일 제 264회 임시회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4.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대덕구의회 원구성에 실패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니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대덕구의회 원구성 실패, 지역주민에게 사과가 먼저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 7일 제263회 임시회에서 원구성을 하지 못한 채 21일 폐회했다. 오는 8월 12일 양당은 합의를 통해 제264회 임시회에서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 밝혔다.

이번에도 고질적인 원구성 실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지고, 그 어느 누구도 사과의 말 한마디 조차 없다. 대덕구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다. 주민의 대표로서 원구성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주민 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리고 원구성이 늦어지며 의정활동에 차질이 생긴 것도 문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는 '제 2조(연간 총회의 일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는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원구성을 마무리 했다면 새로운 의장단이 의사일정을 정해야 하지만, 원구성 실패로 회의 일수만 소비했다. 향후 대덕구청의 업무보고, 추경예산 편성, 조례 제·개정 등의 산적인 숙제가 많다. 하지만 사용 가능한 회의 일수가 부족하게 되 안건 심의를 촉박하게 진행 할 수 밖에 없다.

지방의회가 개원할 때마다 원구성 실패는 정례적인 행사로 보여질 정도다. 이번에도 대덕구의회에서 원구성이 실패되며 실망감만 안겨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6월 15일 지방선거 직후 성명을 통해 지방의회는 고질적인 원구성 실패는 없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또한 대화와 조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살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의원과 소속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원구성 실패 과정에서 대덕구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두 정당은 원구성이 합의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한다.

대덕구의회는 권한과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대덕구 주민에게 7월 원구성 실패에 대한 사과와 8월 12일 정상적인 원구성을 마무리 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8월 1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병구 이정림